



◇ 죽림정사에서 (15×22cm).



◇ 가야산의 佛足 (41×35.5cm).

# 인도 그림기행 25

그림·글 이호신

## 붓다 발자국과 최초의 절터

(가야산과 죽림정사에서)

# 탐욕의 불을 끈 대나무 숲

보드가야에서 가야(Gaya)로 가는 길. 전정각산(前正覺山) 건너편쪽으로 가다보면 두개의 봉우리를 가진 산이 우뚝하니 소위 코끼리 형상을 닮았다고 붙여진 상두산(象頭山)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에게 가야산(伽倻山)으로 불리는 또 하나의 이름에 더 정이 간다.

‘합천 가야산 해인사’를 떠올리며 이른 아침 산을 오르러니 안개속 시야는 마치 천상계(天上界)인양 바위가 떠다니고 숲이 허공에 어른 거린다. 안내자의 뒤만 따라 정상에 오르자 힌두형식으로 붓다상을 모신 옆 바위에 커다란 불족(佛足)이 새겨져 있다.

이 가야산 불족은 여러 가지 문양으로 새겨졌는데 24개의 살을 가진 법륜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세 마리의 잉어가 새겨진 형상이다. 추측컨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김해지역의 ‘가야’ 지명과 김수로왕릉에 그려진 물고기 형상이 떠오르느냐 ‘가야불교의 초전(初傳)’을 새삼 곰곰이 살펴보아야할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佛足에 새긴 문양 가야불교에 영향끼친 듯 왕사성 가는 길 화려한 꽃마차 행렬로 눈길 이슬람교도의 무덤터로 변해버린 죽림정사

한편 그 옛날 붓다가 제자들과 왕사성을 향해 가던 중 이곳을 지나며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설했다는 ‘상두산 설법’은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 산위에서 설교한 산상수훈(山上垂訓)에 비견할 경우로 회자되고 있다.

“온갖 망상이 부딪들을 쳐 머리색음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타고 있다. 눈에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타고 있다. 그 형상을 인식하는 생각도 타고 있다. 눈으로 보아 생기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타고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해 타고 있다. 또한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번뇌로 인해 모든 것이 타고 있다..”

결국 타오르는 만가지의 욕망과 애착을 끊어야 비로소 해탈 할 수 있다는 붓다의 설법을 산바람속에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중생의 염원을 담은 수많은 불탑들이 눈에 띈다.

스님은 내게 물었다. “이 화백,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이 어떤 탑인지 아요?”

“네 스님, 경주 남산 용장사지 3층석탑 말씀이니까?”

“오. 용케도 아시누만, 기반부가 없는 탑은 산 아래 평속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지요.”

“스님, 저는 국보나 보물로 정한 탑보다 가장 좋아하고 아름답게 느끼

는 탑이 있습니다.”

“참 궁금하네요. 무엇인가요?”

“네 스님, 만인들이 쌓은 돌무더기로 아랫돌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조심 올려쌓은 저 돌탑들입니다. 형상이 모두 다른 조형미며, 남의 소망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돌탑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나무 반아벼리땀, 동강입니다.”

물안개에 젖은 몸은 가야산의 인연으로 한껏 부푼 마음이 되어 길을 재촉하니 라즈기르(Rajin)=왕사성(王舍城)으로 가는 길이다. 초가로 지은 가옥과 무너진 집터, 한적한 농지에 백로 한 쌍이 사선을 그리며 허공을 풍경으로 되살려 준다.

마침내 왕사성에 이르는 길목은 험한 돌산들을 끼고 들어서는데 교통수단으로 마차들이 진풍경을 이루고 있다. 꽃마차의 장식은 매우 볼거리를 자극하는데 화려한 지붕 장식과 갖가지 형상으로 말을 치장한 것들이 눈길을 끈다. 따라서 꽃마차 행렬은 옛 왕사성의 분위기를 돋우는데 크게 한몫 보여주는 셈이다.

왕사성 유적지엔 당시의 마차 자국이 드러나는 곳으로 바위산에 고랑처럼 파인 흔적은 색다른 화석을 보는 것 같다. 한편 특이한 가로수 보호대는 둥글게 적벽돌로 엮었고 흰칠로 띠를 둘렀는데 사정인즉, 바람이 통하게 하고 가축과 말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멋스런 디자인이다.

이제 서둘러 목격지인 교단의 최초 승원터였다 죽림정사(竹林精舍)를 찾아가자 무성한 대숲의 기대와는 크게 못미치는바, 다만 현장에서 옛 가람의 기원을 되새겨야 했다.

붓다의 생존당시 불법을 숭상한 범비사라왕에게 카란다(Karanda) 장차라 불리우는 한 부호가 기증한 재물로 건립된 절이 바로 죽림정사였다.

원래 이곳 죽림정사는 아차형의 입구를 지나서 숲의 왼쪽부분, 스투파 혹은 승원터로 추정되는 언덕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는 이슬람교도의 무덤터로 살펴질 뿐이다. 대나무 숲은 아주 마디가 짧고 멀리서 보면 한그루처럼 촘촘히 모여서 길목으로 군집을 이룬 것이 특이하다. 이 대숲을 지나면 이곳 정사를 기증한 장자의 이름을 딴 카란다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일행들이 탑돌이 하듯 연못을 돌며 발원의 시간을 가지는 사이, 나는 현장에서 화점을 펼쳐 부감시(俯觀視: 높은곳에서 아래를 넓게 조망하는 시각)로 먹을 갈고 붓을 들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연못속을 흐르고  
목탁소리 연불소리, 허공을 치달릴제  
대숲 바람 울려서 묵향(墨香)에 갖아드네.

lhs1957@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더여행사

# 인도 불교성지 순례자는 반드시 이 책을 준비해야 한다!

#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불자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꼭 다녀와야 할 '인도 불교성지 순례', 무엇보다 충실한 사전준비가 순례의 뜻을 더욱 깊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이 순례에 나선 모든 불자님들을 잘 인도하여, 신심과 기쁨을 한층 키워줄 것입니다.

“부처님, 저희들도 부처님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부처님같이 살아가 하요. 민본의 일이라도 부처님같이 살아가 합니다...” - 문명에서

인도 불교성지 순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꼭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순례 길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 달광 조총제(전국인도회) 회원



저자 김재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하였다. 서울 동덕여고에서 33년간 봉직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1970년 미래 동역불교학성회와 정교리회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지도법사로 있으며, 1984년부터 현재까지 동행불교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한반도에서 구시가지까지』, 『은혜속의 주안일세』, 『악소의 불자님들』, 『355일 부처님과 함께』, 『우리도 부처님같이』, 『진즉종도문』, 『경매스님의 생애의 사정』, 『만소리 불타전』, 『초기불교개척사』, 『붓다의 대승간성론』 등 다수가 있다.

신국판 / 368쪽 / 값 9,000원  
※ 단지에서 10권 이상 구입하면 할인해 드립니다.